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6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자금세탁방지 '비상' 걸린 은행들
- 반부패협의회, 올 하반기 지자체·지방의회 감찰키로
-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6천만원…부패신고 21명에 4억
- 반부패협의회, 올 하반기 지자체·지방의회 감찰키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윤리경영 Quantum Jump

3. 청렴 위반 사례

-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 입찰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허위 보고

4. 지식마당

-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효과 비교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자금세탁방지 '비상' 걸린 은행들

“특명! 미국이 오케이할 때까지”

“국내 일부 은행이 외국에서 벌금을 맞았는데, 이는 국내 한두 은행의 문제가 아니다. 최고경영진부터 경각심을 갖고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체제를 갖추는 데 힘써달라.”

5월 2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외국에서 벌금 맞은 국내 은행’은 NH농협은행이다. 지난해 연말 NH농협은행은 미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1100만 달러(약 1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금세탁방지만 금융기관이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갖추고 금융·사법당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한국은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기구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되고 관련 제재 또한 엄중해지자, 국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요즘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고, 2018년 중점 검사사항 중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체제 점검을 꼽았다.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체계 및 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해외 점포의 현지 자금세탁방지 법규 준수 여부,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 실태 등을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356699/1>

2.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16년, ’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국민권익위에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284>

최근 동향 및 소식

3.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6천만원...부패신고 21명에 4억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업체 대표에게는 지원금 3억76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번달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8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만원을 받은 사람은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북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뒤 외주 업체에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5년 9월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같은해 12월 경찰청과 경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북도는 업체에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외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http://news1.kr/articles/?3351282>

4. 반부패협의회, 올 하반기 지자체·지방의회 감찰키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 자치단체와 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통해서 토착 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 지지하에 국정 운영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정 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주고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1817381908743>

윤리경영 실천 사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윤리경영 Quantum Jump

지난 1922년 조선화재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손보사인 메리츠화재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고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대고객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준법·윤리교육

윤리경영 Mind-Set 교육

메리츠화재는 고객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최우선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정확히 이해하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고객이 비례보상 등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집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Mind-set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윤리경영 Mind-Set 교육은 임직원의 준법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기여 및 준법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매월 준법지원담당자에 의한 부서별 자체 교육(금융사고 예방, IT보안, 기업윤리 등) 실시 및 교육결과 정기보고서를 입력하고, 매년 전 임직원 준법·윤리경영 E-learning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채널별 또는 본부별 전략회의 시 완전판매에 대한 회사의 방향, 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사 교육부분에서는 완전판매 지침을 향상 교육하고 실제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단계별로 의무과정을 확대해 시행 할 예정이다.

RCSA(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리스크통제 자가점검) 시행

메리츠화재는 업무프로세스에 내재된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및 생활화를 위해 리스크통제 자가점검(RCSA)을 시행한다.

RCSA는 매부 내부통제, 감독기관 정책, 직무별 리스크 관련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두번째 주 클린데이를 시행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련 자가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RCSA를 강화한다.

1. 사전예방·모니터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모니터링

임원 및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자본시장 공정거래 준수를 목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매분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매분기 단기매매차익 관련 메리츠 계열회사 주식 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임원 및 관련부서 직원의 자본시장 공정거래사약을 징구한다. 임원의 메리츠 계열회사 주식 매수시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구성하여 자본시장 공정거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및 민원의 효율적 관리

메리츠화재는 소송관리위원회 조직을 만들었다. 보험회사가 1년에 2,000건의 소송건을 다루는데,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거르도록 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소송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간 소송제기 및 민원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소송제기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이에 소송제기 사전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쟁점별 소송사례 매뉴얼을 제정한다. 민원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정해 소송 및 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실시한다.

3. 내부신고제도

클린센터(Clean Center) 확대·개편 시행

클린센터는 급변하는 환경의 성공적 변화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하여 회사의 윤리규범의 불이행 등 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책임 경영 정착 및 발전적 경쟁문화 구축에 목적을 두며 임직원, 영업가족과의 다각적 소통 및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보자 익명성 보장을 위한 사외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고채널 운영을 위해 5개 사옥에 소통함을 설치하여 내부신고제도 신고채널을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4. 시상

내부통제활동 우수자 선정

내부통제활동 우수자에게 혜택을 주어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고, 준법·윤리경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내부통제활동 우수자를 선정한다.

이에 매분기 내부신고·제보 또는 내부통제활동 우수자를 선별하여 공지하고, 매년 업무성과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메리트화재인상의 후보자로 추천한다.

내부통제활동 지수, RCSA 우수·부진 부서 공개

내부통제활동 지수 및 RCSA 우수·부진 부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준법·윤리경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매분기 영업/보상/본사별 내부통제활동 지수를 부서별로 점수화하여 공개하고, 매분기 RCSA 우수·부진 부서 공지 및 독려함으로 준법·윤리경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5. 향후 도입 예정 프로그램

준법지원담당자 운용 활성화

준법지원담당자의 역할 고취 및 책임 강화,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우수 및 부진 준법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협의회 개최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내·외 금품·선물·향응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실시

업무 관련하여 거래처와 부적절한 거래 및 사내 부정한 청탁을 위한 선물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임직원 직무 암행감찰 실시하고, 외부업체 방문을 통해 불만 등의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입찰 탈락 업체에 대해 입찰과정상의 불공정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한다.

6. 핵심 추진사항 도입결과 획득한 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소송제기가 감소하고, 민원 유형별 사례 및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공지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내부통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내부신고제도 확대 시행으로 제보 건수 증가 및 제보의 질이 향상되어 투명한 윤리경영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자율감시, 사전감시·모니터링 강화로 인한 윤리경영을 체(體)화하고, 내부통제활동 우수자 시상 등으로 인한 준법감시 관심 제고 및 윤리경영 Mind-Set이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실천 모범사례, “윤리경영 Quantum Jump”

청렴 위반 사례

1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모 중앙행정기관 인사팀 소속 공무원 A는 직원 승진임용 업무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심사 위원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에 있는 공무원 B를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공무원 B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함. 공무원 A와 친분이 있었던 공무원 C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공무원 A의 발언을 다른 승진심사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무원 A는 아무런 조치 없이 회의록에 서명함

시사점 :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회의록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C는 공무원 A의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록하였고, 공무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서명하였으므로 모두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제2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입찰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허위 보고

모 공직유관단체 계약체결담당 공무원 A는 조달계약을 의뢰한 공용물 구매 사업의 입찰업체인 B가 허위 카탈로그를 제출하자, 이를 알면서도 사업부에 카탈로그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하여, B가 규격적격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게 함

시사점 :

- ① A는 계약체결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B 업체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와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위반임

제2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지식마당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효과 비교

1. 배경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이미 1930년대 제기된 사회적 책임 활동은 2010년 5,200개 기업이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업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1일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ISO26000이 제정·공표되면서 CSR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개념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개념인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s)로 확대되었다.

2013년도 대한민국 광고대상의 7개 부문 중 4개 부분에서 대상 수상한 작품들이 CSV 기반의 캠페인인 것만 보아도 국내 기업들의 CSV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CSR과 CSV 효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소개한다.

2. 가설

CSV 활동은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높임으로써 CSR활동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설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기된다.

[가설 1]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성 인식이 더 높게 평가될 것이다.

[가설 2]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브랜드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업동일시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진정성이 더 높게 평가될 것이다.

3. 가설의 검증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200명의 응답자의 비율은 남자가 67명, 여자가 133명 이었다. 10대가 8명, 20대가 91명, 30대가 90명, 그리고 40대 이상이 11명으로 2~3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중 미혼이 171명, 기혼이 29명으로 미혼의 비율이 높았다.

용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가진 윤리적 가치나 기업활동의 투명성, 종업원들 간의 관계, 준법 경영, 환경경영 및 지역 사회나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 등을 총망라한 개념	공유가치 창출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통해 이익을 늘리고, 사회의 문제를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창출과 일체화시킨다는 의미
공통점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 이미지 제고에 기여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임직원 봉사활동 등에 집중 - 기업이 사회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형식.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한다는 단점 - 지속성·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는 한계 - 기업과 사회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예: IT기술교육,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물자원 보존_코카콜라, 공정무역(커피원료)_스타벅스) -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 사회적 파급력/소득 증대 - 사회공헌의 효과는 물론, 사회공헌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로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까지 일거양득의 효과 창출

< CSR과 CSV 비교 >

지식마당

CSR과 CSV의 단순 효과 비교

가설 1~4에서는 고객 인게이지먼트로 인하여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구체적으로 가설 1은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성 인식이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분석결과, 아래 <표>에 제시된 대로 CSV 활동에 대한 사회책임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의 브랜드 태도 역시 예상대로 CSV가 더 호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진정성 역시 가설에서 예측했던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회책임성 인식, 브랜드 태도, 기업-소비자 동일시, 진정성 모든 항목에서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하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단순 비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성 인식, 브랜드 태도, 기업-소비자 동일시, 진정성의 모든 항목에서 피험자들이 CSR 활동보다 CSV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SV가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런 활동들이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향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이 단순한 인적 물적 기부형태의 CSR 활동에서 고객들을 동참시켜 좋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CSV 활동으로 변화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기부 활동이나 교육 활동 등의 기존의 CSR 활동보다는 기업의 제품 및 특성에 기인하는 차별화된 CSV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 소외계층지원, 환경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CSV 활동으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내에서 더 나아가 진출 희망 지역의 정부기관 및 NGO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지의 소비자에게 맞는 CSV 활동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내일신문(2011), "사회친화적 활동, 초일류기업의 가능자" Hyundai CSR, "현대자동차의 CSR/CSV 활동 2015 가을 이야기".

Porter & Kramer(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BR.

윤각, 이은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회책임성 인식	CSR	100	4.84	1.42	2.29	p<.05
	CSV	100	5.28	1.29		
브랜드태도	CSR	100	4.23	1.19	4.15	p<.01
	CSV	100	5.91	1.15		
기업-소비자 동일시	CSR	100	3.69	1.41	4.55	p<.01
	CSV	100	4.58	1.35		
진정성	CSR	100	3.82	1.42	4.21	p<.01
	CSV	100	4.63	1.3		

< CSR과 CSV의 단순 효과 비교 >

Quiz

1. 다음중 CSR과 CSV에 대한 차이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CSV -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 사회적 파급력/소득 증대
- ② CSV - 지속성·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는 한계
- ③ CSV - 기업이 사회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형식.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한다는 단점
- ④ CSR - 기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2. 다음중 CSR 활동과 CSV 활동의 효과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의 CSV 활동은 CSR 활동보다 사회책임성 인식 항목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 ② 기업의 CSV 활동은 CSR 활동보다 브랜드 태도 항목에서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③ 기업의 CSV 활동은 CSR 활동보다 모든 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 ④ 기업의 CSV 활동은 CSR 활동보다 진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음중 CSR과 CSV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지속성·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는 한계
- ② 기부, 임직원 봉사활동 등에 집중
- ③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④ 기업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영향

4. 다음 중 용어와 용어에 대한 개념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CSR - 기업이 가진 윤리적 가치나 기업활동의 투명성, 종업원들 간의 관계, 준법 경영, 환경경영 및 지역사회나 국제사회에 대한 봉사 등을 총망라한 개념
- ② CSV -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통해 이익을 늘리고, 사회의 문제를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창출과 일체화시킨다는 의미
- ③ ISO26000 - 국제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 ④ ISO26000 - 국제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CSR - 기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 2. 답 ③ 기업의 CSV 활동은 CSR 활동보다 모든 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 3. 답 ③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4. 답 ④ ISO26000 - 국제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관련 행사

1. 발명진흥회,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근절 서약식 개최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회의실에서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 근절 서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채용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하지 않기로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발명진흥회는 올해 윤리경영 기본계획으로 ▲반부패·청렴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기반 조성 ▲반부패제도 발굴 및 개선 등 부패행위 척결 등에 대해 대내외에 공표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625151923919>

2. 울산과기원, 반부패·청렴 선포식 개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19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열었다.

2년마다 열리는 전체 교원 워크숍의 하나로 마련된 이 행사는 울산과기원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도 청렴 문화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정무영 총장은 인사말에서 "울산과기원이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청렴·윤리의식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선포식을 계기로 교원들 모두 한층 강화된 청렴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자"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9/0200000000AKR20180619145000057.HTML>

3. 중진공 경북동부지부, '윤리경영의 날' 행사서 청렴사회 조성 다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지부장 황의경)은 4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실천 다짐 기회를 마련코자 '제 5회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 대표 등을 고객대표로 초청했으며, 전 직원이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서약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40년, 청렴으로 100년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윤리메시지를 전달하며, '청렴리본 달기'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no=1028338>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